



## 탈북 대학생 10명 방일영장학생으로 선발



방일영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탈북대학생 10명이 우초 방일영 선생 흉상 앞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 다섯번째 부터 조선일보 강천석 주필, 조연홍 재단이사장, 방사장, 김대중 고문.

**방**일영문화재단(이사장 조연홍)은 12월 17일 탈북대학생 10명을 방일영장학생으로 선발, 발표했다. 재단이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것은 처음이다. 재단은 2009년과 2010년 탈북대학원생을 각 1명씩 장학생으로 선발해 식사과정 등록금 전액과 보조장학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이로써 1974년부터 시작된 방일영장학회의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자는 모두 5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쳤으며 졸업할 때까지 학업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의 보조장학금을 매월 받게 된다. 이들 학부생들은 대학원생들과 달리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금은 전액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생활 기반이 거의 없어 등록금 이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없고 결국 남쪽 학생들을 따라갈 수 없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서중회 신년회 1월 19일 개최

올해 서중회 신년회 겸 정기총회가 1월 19일(수)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린다. 정기총회에서는 서중회 발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장단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초청장은 1월초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 제 17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에 박송희 명창



박송희 명창(왼쪽)이 조연홍 이사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박송희 명창.

우리 재단이 국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에게 주는 방일영국악상이 올해에는 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 박송희(朴松熙 · 83) 명창에게 돌아갔다. 박 명창은 평생 우리 소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팔순에도 제자 기르기를 멈추지 않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을 받았다.

11월 17일 오후 5시 조선일보사 편집동 7층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 17회 방일영국악상 시상식에서 조연홍 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송희 선생님은 평생을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판소리 완창무대를 이어가시고 후진을 길러내는데 앞장서셨다”며 스승 박록주 명창을 깎듯이 모셔온 지극한 정성을 아울러 치하했다. 심사위원장인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박 명창은 오늘도 소리를 화두로 잡고 제자들과 함께 소리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을 장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미용 국악방송 이사장은 축사에서 “여류 명창 대부분이 환갑을 넘기면 토막소리 하기에다 벅차다고 하는데, 몇 년전 팔순 가까운 연세에도 완창 발표회를 가지신 걸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박 명창은 수상 소감을 밝히며 “제게 소리를 가르쳐주신 김소희 · 박록주 선생님께 이 상을 바친다”면서 눈물을 보여 장내를 숙연케 했다.

시상식 후 축하공연에서 박 명창은 스승 박록주 명창이 타계하기 전날 남긴 글에 가락을 엮은 단가 ‘인생백년’을 불렀다. 천장을 찌르는 듯한 힘있는 목소리였다. 이어 박 명창이 젊은 시절 함께 공연을 다녔던 임방울 명창의 대표곡 ‘쑥대머리’를 박 명창의 남자 제자 셋이 불렀고 여제자 채수정씨는 ‘홍보가’ 중 첫째 박 타는 대목을 불렀다. 채씨는 지난 9월 광주에서 열린 임방울국악제에서 방일영상을 받아 스승과 제자가 두 달 간격으로 방일영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국악인 김성녀씨가 진행을 맡은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인 이생강 대금 명인(12회), 북의 명인 정철호 고수(15회), 민속음악학자 이보형 선생(16회)과 심사위원인 송방송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재숙 전 서울대 교수, 김영재 · 안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그리고 내빈으로 김중채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 김청만 새울전통타악진흥회 이사장, 김대행 서울대 명예교수, 정병현 숙명여대 교수, 김진영 전 판소리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에서는 조 이사장과 윤주영 · 안병훈 전 이사장, 이종식 · 김용원 이사가, 조선일보에서는 방우영 상임고문과 방상훈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제 8회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 거행



‘2010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

  
올해의 스승상

재단과 조선일보사,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제정·시상하는 ‘2010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이 12월 9일 오후 조선일보사 편집동 7층 TV스튜디오에서 수상자와 가족, 동료, 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강운재(연기 감성초), 김범식(대전맹학교), 김정옥(진주 양지초), 문왕철(순천 매산고), 박경윤(장원 팔룡중), 배미영(광주 월계초), 봉병탁(광주 서강고), 양인(완도 고금고), 오종환(수원 삼일공고), 이춘화(수원 대선초), 정명규(진주 경남과학고), 조현미(의령 낙서초), 하도선(시흥 연성중), 하여영(부산 사직중) 교사 등 모두 14명의 초·중·고 교

사가 상패와 상장, 상금 1000만원, 연구대회 평정점을 받았다.

‘올해의 스승상’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을 찾아 널리 알려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돼 왔다. 다른 교육상들과는 달리 수상자가 모두 평교사인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은 상금을 포함한 행사 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올해까지의 수상자는 총 106명이며, 이들은 ‘한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자주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위원장인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심사경위 보고를 통해 “사회와 교육현장에 공감을 주는 헌신적인 실천 내용인가, 존경받는 스승상의 정립과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심사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제자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따뜻한 사랑과 열정을 다 바쳐온 선생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헌신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확신한다”며

조선일보는 선생님들과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사랑과 열정을 다해 교과 지도와 인성교육에 힘써 교육을 통한 희망만들기에 앞장서신 분들”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이 인정받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예의 수상자들 (가나다 순)



김정옥  
전주 양지초



문왕철  
순천 매산고



강윤자  
연기 감성초



김범석  
대전 맹학교



박경운  
창원 팔룡중



배미영  
광주 월계초



봉병탁  
광주 서강고



양인  
원도 고금고



오종환  
수원 삼일공업고



이춘화  
수원 대선초



정명규  
진주 경남과학고



조현미  
의령 낙서초



하도선  
시흥 연성중



하영철  
부산 사직중

〈1면에서 계속〉 북한에서 출신 성분과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주민은 현재 2만명을 넘어섰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1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간의 전혀 다른 교육내용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내며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간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탈북 대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장학금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재단은 앞으

로도 북한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매년 10명 안팎으로 선발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여는 엘리트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발에서는 기존의 장학생 선발과 달리 대상 대학의 범위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대학별로는 서강대-한국외대 각 2명,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이화여대-건국대 각 1명 씩이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金熙松(가명)▲金永皓▲朴요셉(가명)▲孫眞赫▲李哲眞▲丁光成▲趙成鎬(가명)▲池潤玉▲崔盛愛▲崔은별

## 제 18회 임방울국악제 후원

재단은 지난 9월 3~6일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 제 18회 임방울국악제에 상금과 장학금 2000만원을 후원했다. 국창(國唱) 임방울 명창의 예술혼을 기리고 새 명창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서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은 2008년과 2009년 잇달아 최우수상인 방일영상을 받았던 김명남(41)씨가 받았다. 대통령상 상금은 1500만원이며 방일영상 상금은 1000만원이다. 올해 방일영상은 ‘박사 소리꾼’인 채수정씨(40)가 받았다. 채씨는 2008년 2월 이화여대 한국음악과에서 ‘판소리 다

섯 바탕의 중모리 대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종심사 결과 두 사람은 ‘98.2 대 98.2’로 동점을 이루었으나 심사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씨가 대통령상 수상자가 됐다. 채씨는 2010년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인 박송희 명창의 애제자이기도 하다.

재단은 조선일보사와 광주광역시, SBS가 주최하는 이 행사를 3년 전부터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금중 상금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은 ‘방일영 장학금’ 이름으로 초·중고생 30여명의 입상자들에게 전달했다.



김명남씨.



채수정씨.

### 제 15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정철호 선생 고법(鼓法) 발표회 및 회고록 출판기념회 개최



명고수 정철호 선생.

제 15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인 명고수(名鼓手) 정철호 선생이 12월 23일 오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직접 부채를 쥐고 임방울류 판소리 ‘적벽가’를 부르는 무대를 열었다. 조선일보사가 후원한 이 공연에서 정 명인은 김혜자, 신한섭 등 제자 4명과 함께 ‘적벽가’ 중 ‘조조 군사 설움 타령’을 15분간 불렀다. 정 명인은 원래 국창(國唱) 임방울 선생 문하에서 판소리를 배운 소리꾼 출신이다. 공연에 앞서 그의 회고록 ‘명고 명창(名鼓 名唱)의 행로(行路)’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 제38기 방일영장학생 15명 선발

재단은 11월 26일 제38기 방일영장학생 15명을 선발, 발표했다. 이들은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장학생들은 2학년 1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보조장학금을 재단에서 받게 된다. 장학기금은 고(故) 방일영(方一榮) 조선일보사 고문과 방우영(方又榮) 현

조선일보사 상임고문이 출연한 사재(私財)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그 과실금으로 운영된다. 방일영장학금은 대학생 장학금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에 새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김민석 서울대	김성배 연세대	김아주 연세대	김영완 서울대	김정은 서울대
				
김태훈 연세대	손형민 서울대	오주현 서울대	윤대웅 서울대	이담은 고려대
				
이승엽 고려대	이재우 고려대	임정윤 서울대	정재원 서울대	조성훈 서울대

### 조선일보 기자 합격



장학회 34기 김은정(지난 8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회원이 조선일보 기자시험에 합격, 편집국 사회부에서 수습기자로 일하고 있다. 김 회원은 지난해 1월 조선일보 인턴기자로 2개월 동안 활동하기도 했다.



8월 8일 의정부 묘소에서 거행된 방일영 선생 추도식.

## 方一榮 선생 7주기 추도식 거행

재단 설립자 우초(愚礎) 방일영(方一榮) 선생 7주기 추도식이 8월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선영에서 열렸다. 추도식에는 조선일보사 방우영 상임고문과 방상훈 사장,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 등 유족과 김대중 고문, 방계성 자문역, 변용식 발행인, 강천석 주필 등 조선일보사 임직원을 포함해 모두 120여명이 참석했다. 재단에서는 조연홍 이사장과 윤주영·이종식·최병렬 이사와 한백현 감

사 등이, 서중회에서는 현종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추도식 예배를 집도한 김형태 목사는 사도행전 17장 22, 27절의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란 구절을 인용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한 반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하다”며 “우초 선생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 古堂 曹晩植 선생 순국 60주기 추모식 및 고당 전기 출판기념회 열려

민족지도자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고당(古堂) 조만식(曹晩植) 선생 순국 60주기 추모식 및 전기 출판기념회가 선생의 기일(忌日)인 10월 18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사단법인 고당 조만식선생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우리 재단 설립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을 비롯해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 박용욱 이북5도위원장, 백선엽 육군협회장,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과 조연홍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등 고당의 유족, 언론계-학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관료사8면>



고당 조만식 선생 순국 60주기 추모식 및 전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욱 이북5도위원장, 조창석 고당조만식 선생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김관선 산정현 교회 목사,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 백선엽 육군협회장, 방우영 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안병훈 기파랑 대표, 김유선 시인, 조연홍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7면에서 계속〉 방우영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해방 직후 고당 선생은 서울로 내려가라는 동지들의 권유를 마다하고 ‘나는 죽으나 사나 평양을 떠날 수 없다. 이북 동포들과 함께 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씀을 남기셨다”며 “지금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일성 일가의 3대 왕권 세습과 60년 동안 억압받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보면 왜 고당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산 세력과 맞서 싸웠는지, 그 정신과 기개를 다시 새겨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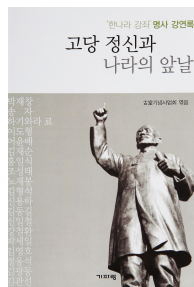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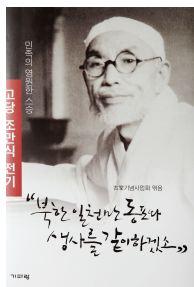
추모식은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의 기도에 이어 김유선 시인(장안대 교수)의 ‘제이.엠.에스 (김소월 시)와 ‘세상을 앓던 사람 (박남수 시) 시 낭송으로 이어졌다. ‘제이.엠.에스’는 조만식 선생의 영문 이름 이니셜이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추모 강연에서 “고당 선생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을 잃지 않았기에 항일운동과 반공정신이 밑바탕이 된 높은 차원의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모식 후 기념사업회가 기파랑 출

판사에서 펴낸 고당 전기 ‘북한 일천만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겠소’와 추모 강연집 ‘고당 정신과 나라의 앞날’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전기는 1960년대에 출간된 전기를 토대로 최신 자료들을 풍부하게 추가하여 발간됐다. 추모 강연집에는 김재순·노재봉·신용하·김동길·박세일씨 등 각계 19명의 강연문을 담았다.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김학준 동아일보사 고문은 “우리 민족 역사의 과제였던 빈곤과 착취, 쇠국, 세습을 대한민국은 청산한 반면, 북한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서 공산주의자와 소련군에 맞서 굳건히 싸운 고당의 선견지명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식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언론과 교육을 통해 민족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제2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는 조선물산장려운동을 펼쳤다. 광복 후 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 헌신하다 6·25전쟁 중 순국했다.



##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15명 선정

재단은 10월 18일 을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15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각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저서를 출간해야 한다. 이로써 1994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언론인과 언론학자는 총 427명에 이르게 됐다. 지원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승훈**  
서울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웅**  
KBS사우회 회장



**김연수**  
문화일보 사진부 부장기자



**김종래**  
전 조선일보 출판국장



**민병욱**  
백석대 초빙교수



**민석기**  
매일경제 정치부 기자



**설희관**  
전 한국일보 총무국장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이중**  
연변과학기술대 명예총장



**이창섭**  
코리아타임스 논설주간



**정혁훈**  
매일경제 경제부 차장



**조우석**  
전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최병수**  
강원일보 편집국장



**최재성**  
스포츠조선 편집국 CND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 사법시험에 5명, 서울대 로스쿨에 2명 합격



문수현



신옥영



정지원



조민식



조재웅



장지철



정태혁

올해 사법시험에 5명의 방일 영장학생이 합격했다. 장학회 29기 문수현(서울대 법학과 졸), 30기 신옥영( ), 33기 정지원(서울대 중문과 4년), 34기 조민식(고려대 법학과 4년)

조재웅(서울대 법학과 4년) 회원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서울대 로스쿨에는 31기 장지철(고려대 법학과 4년), 32기 정태혁(고려대 법학과 졸-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재학) 회원이 합격했다.

## 탈북 대학원생, 통일부 교육위원 선정



장학회 대학원 14기 강룡(연세대 대학원 교육학과) 회원이 지난 8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교육 위원에 선임됐다. 임기 2년의 교육위원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이며 통일문제 관련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한다. 탈북자인 강 회원은 시도별로 모두 1천명을 선임 하는 위원중 최연소 위원으로 뽑혔다.

## 장학회 30기 윤지양씨, 서울대 문학상 휩쓸어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장학회 30기 윤지양씨가 지난해 서울대 대학신문이 주최한 '대학문학상' 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소설 '맨홀에 빠지다'. 서울대 재학생 들의 작품을 공모해 선정한 이 작품은 길을 걷다가 맨홀에 빠진 한 남자가 이미 맨홀에 들어와 있던 여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그렸다.

윤씨는 시 부문에서도 작품 '목마' 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목마' 는 지난 봄에 별세한 외할머니와 보 냈던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목마를 태워주던 목마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학부 4학년 때는 영화평론 부문에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시간' 을 다룬 글을 써서 역시 우수상을 탔다. 희곡을 제외 한 3개 부문 대학문학상을 석권한 것.

서울대 국문과 권영민 교수는 윤씨의 소설에 대해 "상상력이 기발하고 독특하다"며 작가의 길로 정진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사과정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윤씨는 전공을 공부할지 작가가 될지 고민중이라며 1년 후에 결 정하겠다고 말했다.

## 서중회 ‘강남 모임’ 발족



강남회 첫 모임 오찬

8월 18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 버스터미널 옆 메리어트 호텔 지하 중국식당 ‘만호’에서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근무하는 서중회 원 19명이 모여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서중회 ‘강남 모임’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조연홍 재단 이사장, 이종식 재단 사무국장 등 초청 인사들도 참석해 뜻깊은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강남지역 서중회원은 40여명으로 이날은 모임 장소가 법조타운 부근이어서 그런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많았다.

방 사장은 “초대해주어 감사하다”며 “이 모임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 이사장은 강남 모임의 출발을 축하하고 “이 같은 지역 모임이 서중회의 횡적 연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회는 회장에 김성준(서중회 3기·우리 재단 감사) 변호사를, 실무 책임자에 예비회계법인 김영철(서중회 24기) 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 두 달에 한번 모이기로 했다. 참석자들의 자기 소개가 끝난 뒤 강 회장은 “두번째부터는 검소하게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고 강희철 전 서중회장은 “지역별 직능별 서중회 소모임이 많아야 좋다.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로써 서중회 지역 모임은 ‘여의도 모임’, ‘광화문 모임’, ‘강남 모임’ 등 3개가 됐다.

## 원로 서중회원 원종린 교수 수필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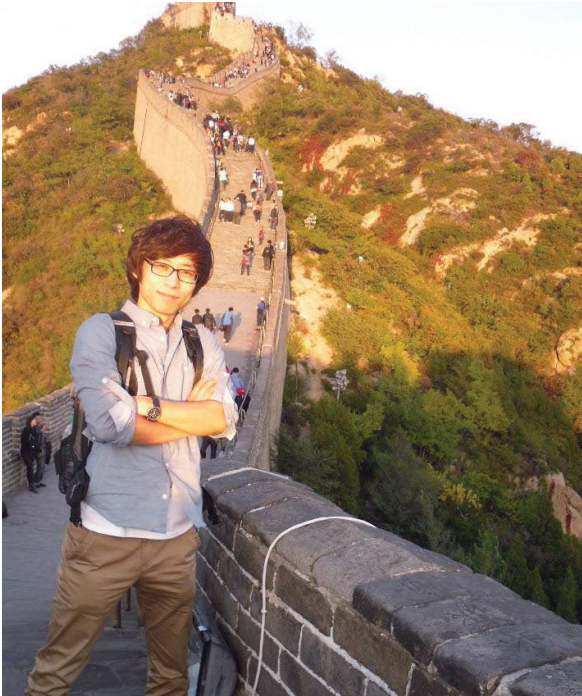
원종린 교수

일제시대 서중회원이었던 원종린 전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연말 미수(米壽) 기념 수필문학선집을 펴냈다. 제목은 ‘혼자 달린 경주’. 저자는 김명년 전 수산청 차장과 함께 생존해 있는 원로 서중회원 두 분중 한 분이다. 광복 전 일본 주오(中央) 대학 예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바디 사범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공주교대 교수를 정년 퇴임했다. 1965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수필가이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저서로 수필문학전집(전 6권) ‘어느 명칭이의 인생일기’ 등이 있다.



#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와보니

이명호 (장학회 32기 · 고려대 경영학과 4년)



만리장성에서.

제가 지난해 9월부터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은 1937년에 설립된 학교로 주로 정부 실무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진 않지만 여전히 정부 기관엔 인민대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인민대는 대체적으로 베이징대, 칭화대와 함께 중국 3대 명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법학, 경제학, 언론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입학생들도 한 성(省)에서 대략 20~30등 안에 드는 수재들입니다.

저는 이전에 뉴질랜드로 교환학생을 한 번 다녀왔었고, 마지막 학기만 남겨둔 상태였기 때문에 인민대로 교환학생을 갈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 이랜드에서 인턴을 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인턴 과정 중 2주 동안 상

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때 중국을 처음 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하면서 상해의 발전된 모습과 중국 중산층의 구매력에 매우 놀랐고, 중국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턴 종료 2주 후 저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은 터라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언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사전조차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영어로 가능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선 생각보다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water, shampoo, coffee 같은 간단한 영어조차 현지인들에겐 낯선 단어였습니다. 할 수 없이 초기엔 바디랭귀지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손짓, 발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일단 옷기부터 시작하는 중국인들은 둘째 치고라도 조금만 난해한 것은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문구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칼집에서 나이프를 꺼내 종이를 자르는 시늉을 하니 자꾸 과도를 주고 결국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수정한 끝에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 처음엔 중국어 몰라 고생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말이 인사에 해당하는 '니하오' 일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식당 종업원을 뜻하는 복무원(fuwuyuan)과 밥을 따로 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문하게 되는 미반(mifan)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처음 외운 중국어 단어도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이제 이 두 단어만큼은 현지인 못지 않는 성조로 구사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언어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교환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부 과목 2개, MBA 과목 2개, 기초 중국어 과목 2개까지 총 6과목의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기초 중국어를 제외하면 제 전공인 경영학 과목입니다. MBA 수업의 경우엔 중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해외 각국

의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의 활기를 높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수업은 제가 다니는 학교인 고려대와 비슷하게 진행돼 별다른 불편함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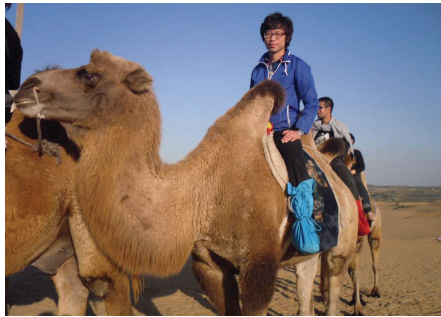
고려대에서 인민대에 고려화관이란 건물을 기증했는데, 인민대 국제처와 고려대 연락사무소, 그리고 외국인 기숙사가 겸해진 곳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엔 한국인이 운영하는 '안방카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안방'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때론 의미를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가 뜻을 설명해주시기도 합니다.

인민대의 중국 학생들과 친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친절합니다. 한번은 지나가는 중국인 학생에게 자전거를 파는 곳이 어디냐고 질문하니 까지를 자신의 자전거 뒤에 태우고는 자전거 매장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는 저 대신에 흥정까지 대신 해줬습니다. 하지만 인민대 학생들은 매우 바쁩니다. 한 학기에 10과목 정도를 소화하는데, 일부 학생은 주말에도 수업을 듣습니다. 이렇다보니 만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 중국학생 애정표현 적극적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 비해 남녀관계에 보수적일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애정표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저녁에 캠퍼스를 걷다 보면 낮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캠퍼스 내 벤치는 대부분이 이들의 차지입니다.

베이징은 전반적으로 매우 현대적이고 편리한 곳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느 측면에서나 서울 못지 않습니다. 지하철도 올림픽을 계기로 확충돼 어느 곳이든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교통의 무질서는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교통 신호를 받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거



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도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러시아위에는 이곳을 자동차가 점령해 자전거는 결국 인도로 쫓겨납니다.

중국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의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 자전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도둑도 많은데 저도 학기 초 구입한 자전거를 도둑맞았습니다. 이를 중국 학생들에게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학생으로부터 위로 대신 자신은 지금까지 자전거를 4번 도둑맞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베이징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인만큼 관광지가 많습니다. 천안문, 자금성, 천구단, 만리장성 등 이름으로만 익숙했던 곳들을 구경하는 재미는 쏠쏠합니다. 특히 이화원이 인상적이었는데 과거 중국 황실 정원이었던 곳입니다. 특히 이화원 내에 서태후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인공호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 땅을 파고 그 흙으로 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면서 이런 거대 공사를 가능케 한 권력의 힘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 덧없음도 느꼈습니다.

베이징 내에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798 예술단지' 같은 현대적 볼거리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엔 공장이었지만 이제는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낡은 공장 시설과 현대 미술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품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월등히 성장한 중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빈부격차 어두운 면도

발달된 베이징이지만 여전히 빈부격차의 어두운 단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늙고 병든 부모를 옆에 뉘인 채 구걸하는 절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근교의 학교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시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2인용 책상엔 3~4명이 같이 공부하고, 교재나 학용품도 충분치 않았습다. 그리고 화장실엔 칸막이도 없습니다. 이곳으로 인민대 학생들이

영어 교육 봉사활동을 매주 가는데 외국인들은 보조 역할로나  
 마 참여할 수 있어서 저도 가보게 됐습니다. 주로 농민공 자녀  
 들로 구성된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  
 부하지만 표정은 매우 밝고, 또 학구열도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 내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곳은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 초원과 사막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초원에선 말타기와 유목민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고, 사막에선 낙타를 타고 모래 언덕을 썰매를 타고 내려  
 오는 경험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 관광업체를 통해서 비용은  
 총 800위안(약 14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 이 정도 예산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순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경탄과 함께 두려  
 움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중국을 다소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  
 선 중국을 다소 낮추어봤지만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인들도 이제 줄을 선다는 사실을 가  
 법게 흘러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중  
 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을  
 알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교환학생 생활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귀국하고자 합니다.

## 북한 ‘촌놈’ 미국 구경가다

오세혁 <대학원장학회 13기 · 고려대 사회학과>

**얼**마 전 나는 미국에 3주간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의 공  
 식 명칭은 ‘International Visit Program’으로 세  
 계 여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방문하  
 여 미국의 사회 문화 및 전문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각국 참가자들은 현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선발했으며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  
 는 사람들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Resettlement in conflict  
 area’ 즉 ‘분쟁지역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정착’이다. 탈북  
 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 내에 있는 다양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정책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미국에 있는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다.

### 장학생된 후 행운따라

처음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무척 놀  
 랐다. 별로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나에게  
 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  
 기 까지 했다. 내 인생에 있어 행운은 방일영문화재단과의  
 인연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제현철 국민대표 선정, 그리고 미국국무성 초청까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워싱턴디씨에서 늦은 오후에 우리는 여행의 짐을 풀었다.  
 식당에서 처음으로 내는 팁 문화는 그대로 충격이었다. 왜 그  
 령게 아깝게 생각되던지 한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도  
 착한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우리는 자유 시간을 갖고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지하철역까지 물어 물어 찾아 갔지만 승차  
 권판매기 앞에서 그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역 안내원의 불  
 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승차권 가격은 시간대마다 다르게 적  
 용되고 더욱이 복잡한 영문매뉴얼을 읽는데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였다. 게다가 금방 구매한 승차권은 기계에서 통과가 되  
 지 않아서 지하철 직원에게 어설픈 영어로 대화하며 겨우 다  
 시 확인을 받아 나갔다. 이렇게 도착한 곳은 스미소니언이라  
 고 하는 박물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스미스라는 사람은  
 원래 영국 귀족출신이지만 몰래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정  
 당한 자기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는 사  
 업가로서 크게 성공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박물관들이 모  
 여 있는 한 가운데 성을 지었고 그 이후로 이곳 주변에 박물관  
 관을 하나씩 세워 나갔다.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따서 스미소니  
 언 박물관단지가 생겨났다.



백악관 앞에서.

오후가 되어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젊은 친구의 친절한 안내로 워싱턴 투어를 시작했다. 백악관을 비롯하여 ‘capital hill’로 불리는 미국 의회 그리고 여러 기념비를 방문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국가적 규모의 거대한 박물관 디자인을 미국인이 아닌 프랑스인, 일본인, 태국사람, 중국인들이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건물과 건물마다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들이 뽑은 의회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곳 수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은 작은 건물처럼 보였다. 시티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날부터 열심히 이곳저곳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주민과 난민에 관련한 연구자들과,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사무소들과, 대학, 미국상·하원 사무실도 방문하였다.

### 미국서 만난 탈북자들

나는 워싱턴 시내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의 한 인권단체를 방문했다. 이 단체는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로 그 활동영역이 대단한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한국은 정치선거의 결과에 따라 비정부 기구나 NGO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미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활동했는데 미국의회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선거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수도에서 1주일간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3개주(州)를 더



링컨 동상 앞.

돌아보았다. 그 여정 가운데 탈북난민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미국생활은 외로워 보였지만 희망적이었던 것 같다. 미국 땅 한가운데서 북한 토종 시투리를 들었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코끝이 찡해오면서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세 자녀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여 영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나머지 수학, 물리, 화학 같은 자연계 과목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고 한다. 교회 앞에서 우리와의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보이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 같다. 그 외에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접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워싱턴 주(州) 시애틀에 머물렀다. 바닷가 바로 옆에 호텔이 있어 마치 바닷물 위에서 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해변의 정취가 물씬 났고 말코니에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먹이를 주는가 해서 금방 갈매기들이 모여들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의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타코마 시장을 만났다. 그는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교 때부터 어머니의 극성스러운 교육열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공부를 잘하여 차별 의식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과 함께 미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미인드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그의 열정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미국 학자는 남을 위해 대가없이 희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이익으로 계산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풍조에 물들어 사회를 위한 봉사 의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20년 동안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라고 하는 타자에 의해 강요되는 행동에 익숙해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 온 지 8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시절에 형성된 왜곡된 모습을 여전히 변화시키지 못하여 온전한 나의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고 온 고향의 재건과 발전을 향한 나의 생각 그리고 동시에 조건없이 같은 동포로 받아준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이에 대한 처방이 될 것이다.

# 2010년, 한 해의 마무리는 연탄과 함께

- 탈북 대학원생 자원봉사 수기 -

강 룡 (대학원장학생 14기 · 연세대 대학원 교육학과, NKYN 대표)



태풍피해 복구 작업 돕기.

에서 남한으로의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커다란 활력(活力)이 되었다. ‘감사함’을 ‘열심’으로 바꾸어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전심전력한 결과 학부 때에는 연세대학교 총장님 명의로 된 성적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학원 학기 성적을 all A로 받기도 하였다.

## 태풍피해복구 자원봉사

감사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 하겠다. 나의 올해를 표현하려면 ‘봉사의 해’라고 하고 싶다. 개인적인 봉사는 물론, 필자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NKYN) 차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온 지난 한해는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보람찬 한해였다. 지난 4년 동안 부적응을 위한 청소년대안센터에서 방과 후 학습지도 봉사를 하면서, 단체 회원들과 함께 한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 복구, 성탄절 불우이웃 돕기 연탄배달, 북한 수재민 돕기 바자회 등 여러 자원봉사를 통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다.

통일은 우리 민족 지상의 과제이다. 통일은 남과 북이 상호이해에 기초한 준비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현재 남한에 입국한 2만여 명의 북한 출신과 4천 8백만의 남한 출신이 먼저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할 때 7천만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에서의 체함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고등교육 경험을 갖고 있는 탈북대학생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NKYN은 남북한

어느덧 한해의 마무리를 알리는 크리스마스도 지났다.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개월이 지났다. 세월은 유수(流水)라더니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본다. 돌아켜보면 지난 한해는 나에게 특별히 뜻 깊고 기억에 남는 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후면 북한을 떠나 국내에 입국한지 5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올 한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제일의 장학회의 장학생이 된 것이라 하겠다. 지인의 소개로 방일영 장학생이 되고 서중회의 쟁쟁한 선배들을 알게 된 것은 북한

## 각주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NKYN)는 북한 출신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자는 취지에서 3년 전에 만든 단체이다. 어려운 북한 출신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을 돕고,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상호이해를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와 토론회, 체육경기를 하는 등 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출신 학생들이 사회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풍 피해복구, 연탄배달,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연탄배달 봉사를 시작하면서.

의 상호이해 함양과 통일외식 교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남과 북을 체험한 통일인적자원으로서의 탈북

대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왔다. 비록 생소한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NKYN 회원들이지만 북한을 떠날 때의 초심으로 사회적응과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 된 통일코리아를 위한 대열에 자신들의 젊음을 바치고 있다.

세답족백(洗踏足白)이라는 말이 있다. “상전의 빨래를 해주면 자신의 발도 저도 모르게 깨끗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계획한 일이 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연탄과 함께”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 성탄절 보다 춥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 친목을 다진 장학회 송년모임

어느덧 2010년도 이별을 고할 때가 왔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그간 지내온 삶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해왔던 장학회 식구들에게 2010년은 어떤 의미였을까? 12월 22일 저녁, 방일영장학회 식구들은 송년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서 우리들은 2010년 한 해를 유쾌하게 회고하며 보낼 수 있었다.

재단 사무실에서 모였다가 이동한 식구들은 광화문에 있는 세븐스프링스 레스토랑 한 쪽을 가득 메웠다. 오랜만에 본 사이들도 제법 있어 처음 자리를 잡을 때는 어색함이 조금씩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수와 이름을 밝히는 가벼운 인사와 함께 그런 어색함들은 이내 사라지고 그 빈 자리에는 화기애애함이 차지하였다. 훌륭한 음식도 이 화기애애함에 큰 몫을 하였다. 학생들은 맛있는 음식들에 각각의 이야기꽃을 곁들이며 2010년의 마지막 모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 될 때쯤, 사무국장님이 일어나셨다. 국장님은 조금은 상기되신 얼굴로 매 회식 때마다 일어나셔서 학생들을 위한 덕담, 그리고 학생들의 사연 소개로 분위기를 한층 더 무르익게 해주신다. 이번 송년회에 국장님

은 2010년을 잘 마무리하자는 말씀과 더불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올해 재단에서 탈북대학생 10명을 특별히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미래 리더 양성을 위해 재단은 재작년부터 탈북대학원생을 선발해오곤 했는데 그 범위를 학부생에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이번 선발은 서강대, 한국외대 각 2명 등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장학회 식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신년회 때 모두 참석할 그 친구들과 교류할 생각에 장학회 식구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다음으로 이날 참석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됐다. 먼저 고려대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게 된 오세혁 형이 나왔다. 오세혁 형은 탈북대학원생으로서 본 장학회 식구가 된 이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며 다른 학생들과 교류해주신 분이였다. 그런 그분을 향해 식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다음으로는 올해 연세대 경제학과 학부과정을 마치게 된 35기 이어진 누나 차례였다. 누나 역시

누구보다도 재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였다. 누나는 현재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누나의 말은 이내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는 특별히 송년회에 참가한 서울대 경제학과 군입대 휴학생 36기 이영민 학생의 소개가 있었다. 이영민 친구는 오늘 참석을 위해 복무 중인 용산 카투사에 휴가를 내고 참여하였다. 곧 이어 프랑스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고 1년 만에 돌아온



36기 고려대 경영학과 박신영 학생 소개가 있었다. 앞으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박신영 친구의 말에 이번에도 장학회 식구들은 환호의 박수로 응답했다.

### 박수와 환호의 시간

이윽고 내년도 장학회 교류를 책임질 차기 간사 소개가 있었다. 간사 선출 대상인 37기 학생들 중 대다수가 내년에 교환학생이나 군 복무를 앞두고 있어 간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에 뽑힌 37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유현석 학생은 간사 직을 잘 수행할 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현석 학생은 내년 10월에 군 입대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성실히 장학회 간사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하였다. 일찌기 신입생 자기 소개때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두각을 나타낸 친구이기에 식구들은 2011년 현석 간사와 함께 하는

장학회에 기대하게 되었다.

이런 박수와 환호의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은 다시 화기에 애한 시간을 보냈다. 중간에 35기 연세대 행정학과 석민경 누나와 34기 고려대 법학과 조민식 형이 참여해 더욱 유희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밤 9시30분쯤 장학회 학생들은 아쉽지만 식사를 마무리하고 일어났다. 앞서 말한 이야진, 석민경 학생과 서울대 영문과 서현영, 서울대 법학과 차성우 등 35기 선배들은 서울대입구역에서 '2차' 를 하기로 하였다. 장학회 식구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일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모임들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모두들 생각했을 것이다.

내년에도 방일영장학회 식구들의 친목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는 신년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방도마 (장학회 36기 · 서울대 정치학과 3년)



### 장학회 간사에 37기 유현석 군

장학회 새 간사에 37기 유현석군(고려대 정외과 2년)이 선정됐다. 명덕외고를 졸업한 유군은 지난 1년간 각종 장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전임 방도마 간사(서울대 정치학과 3년)는 새해 1월 초 군에 입대한다.

9월\*

##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이상우 (신아세아연구소장 · 전 한림대 총장)

역사는 사람이 만든다. 역사적으로 한 민족 혹은 나라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해당 민족 혹은 나라는 번영하게 되고 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순간 망국의 길을 가게 된다. 몇 년 전 타임스紙(지)에서는 지난 1000년 간 가장 큰 리더가 누구인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가장 많은 사람들로 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은 몽골제국을 세웠던 칭기즈 칸이었다. 그는 몽골의 작은 부족을 유라시아를 호령하는 최대 제국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몽골제국은 2~3세대가 되지 않아 지도자들이 분열하면서 멸망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몽골인은 250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청나라가 있다. 누르하치라는 지도자는 만주의 작은 부족이 중원 전체를 대청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게끔 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당시 만주족은 30만이었고 한족은 1억에 이르렀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실로 대단한 업적이었다. 대청제국은 몽골제국과 달리 누르하치 이후에도 잇따라 훌륭한 황제들이 치세를 하면서 중국 땅을 4배로 확장시키고 150개의 조공국을 두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서태후 집권 이후 청은 열강의 침략 앞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망해 버리고 말았다.

###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

역사는 사람이 만든다고 할 때 사람은 바로 ‘깨어있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지도자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뜻을 바르게 세우고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하는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뜻과 지식은 줄기와 잎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물은 줄기가 번창해야 잎이 잘 나고, 또 잎이 잘 펼쳐져야 줄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뜻은 지식에 대한 열망을 깨워주고 지식이 없다면 뜻은 설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역

사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연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는 해방 당시 지도자들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40달러 남짓이었다. 굶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다. 더구나 일본의 36년 식민지배는 조선까지 이어져 내려온 정신사적 흐름을 끊어버렸다. 한반도 인구 3000만명 중 문맹이 80%에 이르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700명에 불과하였다. 대학원을 다닌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는 곧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인지할 사람이 상당히 부족했던 뜻이 된다. 이런 해방정국의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한반도에 2개의 공화국을 창건하게 된 것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의 자치능력이 부족하니 신탁통치 후에 자치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 당시 대다수 지식인들은 신탁통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알고 나서 그들은 식민지 지배의 악몽을 떠올리고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산당 측에선 처음에는 반탁 운동을 함께 하였으나 코민테른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전환해 반탁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사실 이들의 판단은 미래를 볼 안목을 갖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결국 이런 갈등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점점 현실화 되었다.

이후 한반도 처리 문제는 UN으로 보내졌고, UN은 한반도 전체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선거는 북한의 반대로 남한 지역에서만 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것이 조선인들로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기에 정책적 비전이나 당보다는 친분, 가문, 지역 등의 연구가 훨씬 중요한 변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공화국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결정한 사람은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단한 지도자 중 대표는 바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이상우 소장(앞줄 가운데)이 강연이 끝난 후 장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다. 참고로 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은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약속했다가 파기한 프랑스에 대해 해방 투쟁을 하였다. 그는 미국에게 베트남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였고 그는 대신 중국 모택동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다. 이때 호치민은 공산주의를 이념노선으로 선택하였고 이후 베트남엔 내전 이후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승만과 호치민과 같은 지도자들의 선택이 그들이 속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것이다.

### 우리나라 발전의 네 가지 비전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판단으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민주화라는 전세계의 주류적 흐름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100여 개의 국가들 중에서 현재 가장 민주화 정도에 앞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민주화 측면 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현재 ODA(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전환한 첫번째 국가이고 세계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의 모임인 G20 중 하나라는 점에서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발전은 내가 속한 세대들의 입장에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정말 해방 직후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던

지도자들의 뜻이 없었다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까? 계속 제시하듯이 지도자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갖춰야 한다. 이는 현 한국의 시점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본인은 이런 관점에서 크게 대한민국의 비전을 4가지 제시해본다. 일단 첫번째로 Prosperous Korea이다. 아직도 절대빈곤 비율이 많으니 그들을 먹고 살릴 정도의 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Democratic Korea이다. 한국이 제도적 민주화를 성취하긴 하였으나 사회구성원 스스로 자기행위의 의미를 알고 책임을 지는 시민이 절반이 안되기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퓰리즘이 발현될 여지가 상당히 강하다. 한 세기 전 세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반드시 성공할 나라, 멕시코, 러시아, 일본은 성공할 수도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일본을 제외하곤 시민적 성숙의 미비로 인한 포퓰리즘이 득세해 국가적 성공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세번째는 Strong Independent Korea이다. 안보를 자주적으로 달성하지 않는 나라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민들은 자주화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국방세 증대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에는 반대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기적 의식을 가지고서는 현재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비롯한 어떤 나라와 대결해서도 상대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Unified Korea이다. 통일이 되어야 한국이 진정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국민들은 통일 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특히 6.25후 남북은 서로 풍속과 언어, 사고방식 등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지가 더욱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방일영장학생들이 현대의 '선비'가 되어야

지도자들은 한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앞서 말한 4가지 비전을 이뤄낼 뜻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엘리트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한국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발전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 세대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인해야만 한다.

조선 시대에 뜻과 지식을 갖춘 엘리트들을 선비라고 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격은 모두 동등하지만 각기 다른 능력을 갖췄기에 각자가 맡은 역할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우리 방일영장학생들이 이런 선비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를 중흥시킨 계초 방응모 선생님은 독립 이후 사회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신문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장학생을 선발해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라고 다독이었다. 방일영장학생들은 이런 방응모 선생님의 뜻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뜻을 세우고 지식을 갖추어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정리 **방도마** (서울대 정치학과 3년)

10월\*

## 대한문국(大韓問國)과 지식의 통섭

최재천 (이화여대 자연과학대 석좌교수)

인간은 동물이지만 참 특이한 동물이며 인간의 아름다운 행동 중의 하나가 배움이다. 인간 외의 동물들도 배움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만이 배움으로 얻은 지식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한참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인 것은 선택받은 것이기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인류사회에 큰 지식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 마일즈 먼로의 "Foresight with insight based on hindsight."라는 말이 의미하듯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 예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여 굴곡 없는 안정된 삶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나름대로 2020년을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의 경향들을 예측하고자 한다.

우선 고령화시대이다. 고령화는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국에서의 고령화가 문제다. OECD국가 중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한국인데 한국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너무 늦다. 빨리 고령화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문화개방이나 이민자 수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카소의 그림 '엄마와 아기'를 보면서 여성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은 남성



최재천 교수(앞줄 가운데)가 강연이 끝난 후 장학생들과 함께 했다.

과의 비교를 떠나서 여성의 절대적 경제능력과 그에 따른 사회참여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동물은 수컷이 암컷에 아양을 떠는데 남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여성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다음은 인구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다. 특히 지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BRICs의 발전으로 인해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마지막으로 혼화의 시대와 창의와 혁신의 시대가 눈앞에 와있다. 21세기의 삶은, 이전의 국지적인 삶과는 다르게 유전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합, 즉 다문화 현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경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넘나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와 혁신이며, 이는 끊임 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서만이 가능하다.

### 학자의 나라가 되어야

다음은 우리가 속해있는 한국이라는 사회를 위해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해보자. 한일강제병합이 일어난 지 100년. 그동안 한국이 국가건설에 매진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안국(安國) 100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 그 패러다임은

바로 대한문국(大韓問國)이다. 학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창의적인 통섭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다. 또 대한민국은 학자의 나라가 되어야한다. 한국은 인적자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학식이 있고, 정직하고 따뜻한 나라로서 학자의 나라라는 말이 곧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은 주어진 숙제는 곧잘 해결하는데, 문제 자체는 출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좋은 작품을 만들 능력은 있는데, 작품 전체를 구상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곧 현재의 한국은 아직까지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가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넘어서 모든 학문을 넘나드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야를 뛰어넘은 인재라는 점이다. 또, 현대사회가 상당히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지만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라고 말하고 싶다. 여럿이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깊은 지식의 세계를 넓게 팔 수 있다. 그것이 지식의 통섭(通涉)이며, 대한민국이 대한문국(大韓問國)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정리 서진기 <고려대 정의과 2년>

11월\*

## 지금 우리에게 민족이란 무엇인가

이선민 (조선일보 문화부장 · 서중회 8기)

**민**족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 라고 말했듯이 민족을 불변의 절대적 존재, 실제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우리 민족을 5천년전부터 변함없이 존재해온 단군의 후손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에 해당된다. 또 다른 관점은 민족을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왔고 인민(people)의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투표에 의해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듯이 민족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19세기 프랑스의 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은 인민의 매일매일 투표에 기초한다.'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대립되는 두 개의 입장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진실은 이 두 주장의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긴 하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인이 국적을 바꿀 수는 있으나, 민족이라는 일체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이라는 개념은 언제 형성된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17~19세기 서양의 근대국가 형성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런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에 있어서는 프랑스, 영국이 빨랐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보다 늦게 성립되었다.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세계사에서 보기 드물게 단일민족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이런 동아시아의 민족 개념을 서구의 근대 민족국가 형성기에 대두된 민족의 개념과 대비해 '민족제, 준민족, 전근대민족'이라고 명명했다. 그 중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고대 국가 건설기에 형성된 것으로 북방의 부여족(부여, 고구려, 발해)과 남방의 한족(삼한, 가야, 신라)이 합쳐져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민족의 개념은 통일 신라와 고려를 거치며 민족의 범주가 확

장되었으며 민족의식이 강화되었다.

### 도전 받는 단일민족

오늘의 우리나라는 일단 내적인 요인을 살펴보자면, 이미 우리사회 내에 외국인인 급증하고 있다. 2007년 8월에 처음으로 국내 외국인 수가 백만을 돌파했고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050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식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 굳이 단일민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자녀가 국제결혼을 할 경우 허락하겠다는 의견도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과거에도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게 정설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성씨가 275개인데 이 중 귀화성이 136개이다. 특히 고려시대까지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고 인접국가들과 교류가 많았다. 고려시대에는 무려 17만명의 외래인이 고려에 와서 정착했다는 문헌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다민족사회란 여러 민족이 제각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의지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미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영국 중심으로 서유럽으로부터의 이민들이 주축이 되었으나 1965년 이민정책의 변화로 아시아인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에는 멕시코, 라틴아메리카로부터의 히스패닉 계열 이민의 급증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명실상부한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그 외에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과거 자신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왔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언어와 풍습, 학교 교실에서 소수민족을 배제하지 않는 다문화주의 시행



이선민 조선일보 문화부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강연이 끝난 후 장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언어만 하더라도 이미 스페인어는 거의 공용어의 반열에 올라있다. 더 나아가 극단적 다문화주의자들은 다언어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 갈등의 동아시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들어왔다. 첫째는 1990년대 중반 즈음에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으로 한국에 와 있고 자기나라로 갈 사람들이다. 두번째는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 여성들을 주축으로 하는 결혼 이민이며 세번째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고급인력들이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이들 없이는 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외국인 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주된 논의 대상은 귀화인이나 결혼이민을 온 여성들, 그리고 그들이 나온 2세대이다. 특히 세번째 단계의 이민의 경우 유입된 고급인력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의 인

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적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크게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진정한 플레랑스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동화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즉, 형성 초기에는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미국인으로서의 교양을 강조하여, 미국 국기를 가르치는 등 동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동화주의는 초기 유럽 지역에서의 이주가 주를 이루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5년 이후 본격적으로 아시아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흑인들의 인권운동도 거세지면서 저마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지는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주장이 오늘날에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2세에 대해 외국인 부모 쪽의 문화적 정체성을 같이 유지하면서 장차 한국과 그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이상론적인 다문화주의 입장의 사람들과 현실적으로 외국인 2세들이 한국문화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동화주의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다음으로 외적인 요인으로는 동북아 국가 간 갈등과 충돌이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 영유권 다툼, 일본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주된 쟁점이고, 한국과 중국은 동북 공정으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다툼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국가들은 가장 먼저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된 유럽과는 달리 이제야 비로소 근대 민족 국가의 장년기를 지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근대 민족 국가 형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유럽 지역의 경우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 통합을 추진하여 이미 유럽 연합이 출범했고, 유럽 연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단일화체인 유평화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유럽의회가 출범, 유럽을 대표할 유럽 대통령도 선출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특히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 손상된 국가적 자존심 등을 회복하기 위해 대외관계에 있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동북공정의 경우는 고구려, 발해, 심지어 최근에는 고조선까지 자신들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논거를 확장해 대동강 이북의 땅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북한의 앞으로의 향보에 대한 포섭이기도 한데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이 중국에게 많이 넘어간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과거 주요 공업지대였던 만주지역과 북한을 하나로 묶고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도 자신들의 근거지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열도 소유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즉, 홋카이도 위에 있는 쿠릴 열도 북단 4개 섬 중 가장 큰 섬에 최근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하였는데, 일본은 그 곳이 원래 자국 영토였으나 2차 대전 패전국이 되면서 빼앗긴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동아시아가 갈등만 빚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경제, 문화적으로 강한 교류와 유대가 맺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대두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중·일을 묶어 15억의 거대한 경제 통합체가 구상되고 있다. 민간에

서는 동북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간 협력체론이 논의되고, 동북아시아공동체론, 탈미입론, 동아시아문화공동체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전면전만 세 번이 발생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오늘날에는 교류, 협력하고 있듯이, 아시아도 최종적으로는 협력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유럽과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이 같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국가들 간의 인구, 국가 규모가 비슷했으나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이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크고,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구하기 보다는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중화 공동체를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 한민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반도에 사는 사람을 한민족으로 여기는 의견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져왔다. 그러나 분단이 오래되면서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남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보다 강해지고 있다. 최근의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는 굳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현재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도 또 다른 이슈이다.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에 거는 기대도 높아지고, 그들 나름대로 한인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 수는 그 절대수가 화교, 유대인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이며, 현재 한국 국민의 수와 비교해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민족, 민족주의 개념과 현재의 민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민족주의 개념은 많이 달라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국수주의를 벗어나 개방적, 포용적인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당부하고 싶다.

정리 **고민영** (서울대 경영학과 2년)



## 재단지원 신간안내

### 꿈이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 최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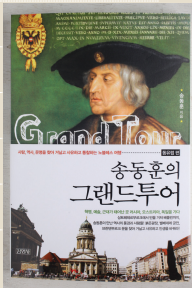
국가대표 축구팀 조광래 감독은 학창시절 매일 새벽 산에 올랐다. 체력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허파가 찢어지기 직전까지 그는 열심히 뛰었다. 가끔 바닥에 쓰러졌고 그때마다 온 산이 빙빙 돌았다. 황영조 감독은 선수 시절, 달리는 트럭에 세 번이나 뛰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훈련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판단했었다. 19년간 현장을 누빈 스포츠 전문 기자가 수많은 고난을 뚫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국 스포츠 영웅 31명의 치열했던 삶을 생생하게 정리했다. 선수들의 별난 어린 시절과 비공개 에피소드까지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학교 갈 차비가 없어 12km 철길을 뒤통지 들고 걸으며 종아리 힘을 기른 야구의 김성근, 태릉선수촌 아산에서 새벽마다 쇠기둥을 붙들고 비지땀을 쏟은 유도의 하형주, 슛 1000개를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았다는 농구의 이종희, 평생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걸어온 산악인 엄홍길, 장갑 마련할 돈이 없어 맨손으로 스윙 연습을 했던 야구의 박정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노력입니다.” 폭풍같이 힘차고, 태양같이 뜨거우며, 명화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진한 감동을 준다. 페이퍼북, 1만3000원.

### 문화, 그 속살보기 | 지중학

기자의 눈으로 문화의 속살을 들여다본 책. 30년 동안 문화기자로 살아온 저자가 풀어놓는 삶과 기사로서의 취재현장, 그리고 체험의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여배우 소피 마르소를 앞장세워 고속열차 TGV를 팔기위해 서울까지 찾아온 미테랑 대통령에게서 철저한 국익우선을, ‘벗는 것도 예술’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포르노 배우로 개입되는 걸 거부한 실비아 크리스텔의 궁지들이 마음의 ‘속살’ 같이 느껴진다고 하며, 그것이 ‘그들의 문화’ 라고 말한다. 저자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문화 역시 일관된 정책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프랑스가 144년 전 강제로 가져간 우리의 외규장각과 관련해 그는 영화 ‘오만과 편견’의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계속 실패할 것이다’라는 대사를 빌려 정부에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다. 영화제 남발과 지역주의, 얼굴팔기에 나선 전국 지자체장들, 호화청사도 저자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어린이들을 위한 썰매장과 점프스키장, 그리고 광장이 새로 마련된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한 비난에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추위를 이기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영화 한편을 보는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안내 기본도 되어있지 않은 있는 서울은 색깔과 번호만 보면 방향은 물론 가고 있는 길의 종류마저 확인할 수 있는 프랑스와 지도 없이도 찾을 수 있는 폼페이 유적과 또렷이 비교된다. 경제풍월, 1만500원.

### 송동훈의 그랜드투어(동유럽편) | 송동훈

18세기 초부터 유럽의 상류층들은 자녀들을 멀리 여행 보냈다. 길게는 6~7년이라는 세월을 여행에 소비하면서 대학교육을 마다하게 만들었다. 여행을 통해 자녀들이 교양인으로 성장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고,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이처럼 배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그들은 ‘그랜드투어(Grand Tour)’라 불렀다. 그랜드투어의 가치와 방법을 국내에 전파하고 있는 저자가 문명을 꽃피우며 아름다운 예술이 탄생한 러시아·오스트리아·독일의 명소들을 찾아서 거닐며 사색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행지는 시간과 사람, 그리고 역사라는 세 가지 테마가 중심을 이룬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그랜드 투어에서만큼은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시대에도 배울 거리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도 중요한 테마다. 역사적 인물의 인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 재단지원 신간안내



움직이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동인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 역시 그랜드투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저자의 말처럼 독자들이 흔히 접하는 여행서들과는 달리 여행지 관광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는 빈약하다. 그러나 세계관을 키우기 위해 자녀와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있는 젊은 배낭객, 역사의 흥망성쇠에서 영감을 얻고 싶은 리더들에게는 최소한의 그랜드투어 준비물이다. 김영사, 1만3000원.

### 여론조사 저널리즘 | 신창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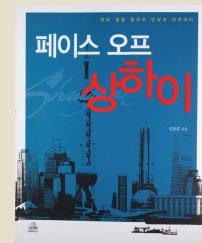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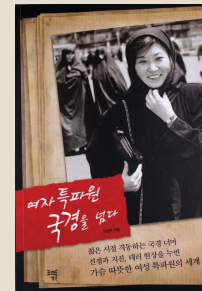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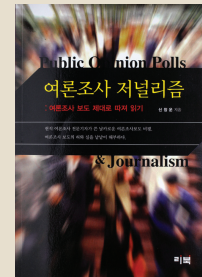
여론조사 결과 역시 많은 정보와 뉴스 중 하나일 뿐이다. 무시해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맹신할 필요도 없다. 믿을만한 조사결과가 대부분이지만, 쓰레기처럼 무용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요미우리 등 5대 메이저 신문사에 게재된 여론조사의 절반이 쓰레기라는 주장도 있다. 쓰레기는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그럼에도 남은 문제가 있다. 믿을만한 여론조사에 근거해 쓴 기사도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 적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쓴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장에선 여론조사 보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글을 모았다. 여론조사 보도시 유의해야 할 사항,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둘째 장에선 잘못된 여론조사 보도를 다루고 있다. 조사 설계 혹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과 해석 및 보도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 혹은 여론조사 보도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곳곳에 널려 있다. 자의적인 해석도 흔하고 버릇이 잘못을 범해 놓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셋째 장에선 선거 여론조사보도와 관련된 쟁점들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의 제 5회 지방선거(2010.6), 18대 국회의원 선거(2008.4), 17대 대통령 선거(2007.12),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2007.7), 그리고 44대 미국 대통령 선거(2008.11) 때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보도를 다루고 있다. “여론조사와 정치 그리고 언론 사이에 벌어지는 로맨스의 핵심”이 선거인 까닭에 여론조사 보도를 둘러싸고 당사자의 이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리북, 1만3000원.

### 여자 특파원 국경을 넘다 | 이정옥

젊은 시절 격동하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쟁과 지진, 테러 현장을 누빈 KBS 전 파리티파원 이정옥 기자의 취재 현장 이야기. 30년 가까이 방송기자로 활동해온 저자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 생활 규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 검은 차도르를 쓰고 취재를 갔던 테헤란에서의 여름날, 코소보 국경의 난민 수용소, 공습으로 파괴된 참혹한 도시의 모습, 두 차례의 이라크 공습 취재, 예멘에서의 인질 납치 사건 등의 긴박한 순간들을 목격하며 긴장과 공포, 아픔과 감동을 느끼게 했던 삶의 강렬한 순간들을 되살려냈다. 또한 여기자에게는 다 이애너비 결혼 소식이나 해외토픽 같은 연성뉴스만을 맡기고, 무거운 뉴스도 시켜달라는 신참 여기자에게 담당 부장이 “여기자가 어떻게 이란, 이라크전을 하나?” 라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던,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980년대 방송사 보도국 모습도 보여준다.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낸 박병선 박사, 천경자 화백, 유럽의 왕족 등 취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있다. 행간, 1만3000원.

### 페이스 오프 상하이 | 신동훈

중국인들에게 상하이는 중국의 미래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용 자기부상열차가 달리기 시작했고, ‘월드파이낸스센터’와 ‘동방명주’ 타워 같은 높은 건물들이 하루가 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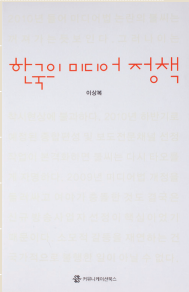


new books



## 재단지원 신간안내

books  
new



다 하고 솟아올랐다. 또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양쯔강 하구와 이어진 물류의 중심지여서 수천 년 된 물길을 따라 지금도 중국 내륙 깊은 곳까지 인구와 물자가 오가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의 최첨단을 걷는 이 도시에는 2000만 명이 넘게 몰려 살며,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1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상하이는 자본주의적 외관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관리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어느 곳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떠돌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들뜬 분위기도 있다. 고층빌딩들이 층수를 높여가는 거리의 뒷골목에는 100년 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있고, 인민복 차림의 노인과 명품 패션을 걸친 젊은이들이 함께 거리를 거닐고 있다. 일간지 기자인 저자는 상하이에 1년간 머물면서 중국식 희망이 깃든 이 도시의 양면성을 들여다본 후 “상하이의 역사, 모순과 무자비함을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미래와 과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세련됨과 조약함이 뒤엉켜 공존하는 상하이의 다양한 얼굴이 감칠맛 나는 문체로 펼쳐진다. 랜덤하우스, 1만4000원.

### 한국의 미디어 정책 | 이상복

201년부터 방송과 미디어 분야를 취재해온 ‘최장수 미디어 담당 기자’가 10년간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정책 이슈를 짚어냈다. 현실과 이론을 접목해 신문, 방송, 통신을 아우르는 미디어를 다루는 정책의 철학과 쟁점,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선 미디어 빅뱅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정책적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2장에선 한국의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미디어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다. 3장은 과거 중요한 미디어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복습하는 장이다. 정책적 고려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던 부끄러운 과거사도 자세히 얘기한다. 4장에선 아날로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디지털화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책적 이슈 20가지를 골랐다. 이 이슈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과 의미, 대안을 입체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 2개 장은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5장은 선진국들의 미디어 정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따라 이뤄지는지 서술했다. 마지막 6장은 한국 미디어 정책의 큰 틀을 세우기 위한 20가지 조언을 기록했다. 커뮤니케이션북스, 1만7000원.

### 내 인생이다 | 김희경

그냥 지금 그대로 살아도 별 탈 없어 보이는데 기어코 인생의 향로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 간호사가 소설가가 되고, 광고 회사 임원이 요리사가 됐으며, 음반 가게 사장이 심리 상담가로, 기자에서 의사로 변신한 열다섯 명의 인생이 정제된 문장에 녹아있다. 이들은 유명세와는 거리가 멀다. 너무 가진 게 많아 뭘 해도 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신 평생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거나 '꿈꾸던 일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열망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열망을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단순히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삶의 본질 자체를 바꾸려는 이들의 두려움이 잘 드러나 있다. 책에 소개된 인물들은 저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이유로, 다른 과정을 거쳐 인생 전환을 이루었다. 그들이 전환을 위해 준비해온 과정, 맞닥뜨렸던 문제들과 해결 방식,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나가는 태도 역시 각각각색이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인생향로를 바꾼 사람들 가운데 이전보다 수입이 확실하게 늘어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세속적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신 삶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만의 가치있는 삶을 찾았기 때문이다. 푸른숲, 1만3000원.